

3월 27일(월) / 출31-33장

▶**내용요약:** 출애굽기 31장은 성막 건축을 위해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일꾼으로 세우신다. 이어 안식일을 기록하고 구별된 날로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이를 목격한 모세는 그들의 잘못을 크게 꾸짖는다. 33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떠나다록 명령하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체험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33장)

▶**생각하기:**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심의 표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자는 죽게 되기에 이는 금기시 되는 요구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33:19)고 말씀하시며 친히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신다. 모세처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3월 30일(목) / 레1-3장

▶**내용요약:** 레위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중심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이다. 거룩이란 단어가 90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강조된다. 1장은 번제에 관한 규정으로 소, 양, 새를 바친다.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헌신과 희생 봉사를 뜻한다. 2장은 소제에 관한 규정으로 고운 가루, 구운 떡, 처음 익은 곡식을 제물로 드린다. 소제는 자기 육식의 소산물, 곧 노동하여 얻은 소산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3장은 화목제를 설명하며 소, 양, 염소를 제물로 바친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들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이다.

▶**질문:**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2장)

▶**생각하기:** 화목제에서는 제물의 피가 뿌려진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준다. **예수의 피** 밖에 없다!!!

4월 2일(주일) / 레10-12장

▶**내용요약:** 10장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제사장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모세가 인도하며 당부한다. 이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와 제물을 먹는 법이 기록된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해 기록하지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함에 대해 기술한다. 11장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분별하도록 요구

3월 28일(화) / 출34-36장

▶**내용요약:** 34장은 모세가 다시 준비한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 35장은 안식일을 기록히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성막을 지을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바친다. 이어 성막을 지을 일꾼들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36장은 백성들이 예물로 드린 성막 재료가 충분히 준비되며 성막 제작이 시작되어 완성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며칠간 먹으라고 하셨는가?(34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재료를 드리게 하신다. 36장 7절은 기록하기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너덕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한다. 성막 지을 재료가 차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재료나 자원이 부족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3월 31일(금) / 레4-6장

▶**내용요약:** 4장은 속죄제를 다루는데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로 각 대상마다 다른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린다. 5장과 6장 초반까지는 속건제를 다룬다. 속건제는 여호와와 성물에 대한 죄와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경우 인간 사이의 관계 가운데 범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이어 6장 후반절에서는 이제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제사들의 의식과 절차에 대해 기록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6장)

▶**생각하기:**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한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속죄제물이 되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이다.

하신다. 12장은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해산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형편에 맞게 비둘기를 바치도록 하신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질문:** OX로 답하세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다.”(11장)

3월 29일(수) / 출37-40장

▶**내용요약:** 37장에서는 성막 안에 설치되는 언약궤, 등잔대, 분향할 제단이 제작된다. 38장은 번제단, 놋 물두멍,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된 금, 은, 동의 양이 기록된다. 39장은 성막공사의 마지막 단계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공사를 마치면서 모세가 이를 확인하여 축복하고 칭찬한다. 40장은 완성된 성막에 준비된 기구들을 설치하고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이 맡은 사역을 감당한다. 이어 하나님께 성막이 봉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다.

▶**질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거룩한 패를 만들 때 이를 만드는 재료는 무엇인가?(39장)

▶**생각하기:**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신다. 광야란 곳은 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황량한 곳이기에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길을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앞에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4월 1일(토) / 레7-9장

▶**내용요약:** 7장은 속건제와 번제,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를 기록한다. 마지막 부분은 모든 제사법에 대한 결론이다. 8장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예식에 대한 말씀이다. 이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한다. 9장은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후 다음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어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불로 그 제사에 응답하신다.

▶**질문:**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에는 우림과 함께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8장)

▶**생각하기:** 9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불로 태워버리심으로 받으신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놀라 소리 지르며 엎드린다(9:24).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임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권위를 직접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임과 영적 권위**를 가지자!

▶**생각하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원하시지만 거룩한 존재이기에 그 분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이를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을 구별케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별되어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 거룩 거룩**이다.